

해외신간

동-서양 건축 차이 '자연과 교감'

임석재씨 '우리 옛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동·서양건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재미있게 비교 분석한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대원사)이 나왔다. 서양건축사를 전공한 임석재교수(이화여대)가 펴낸 이 책은 서양건축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전통 건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게 해준다.

개심사 범종각과 체코 프라하의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의 경우를 보자. 개심사 범종각은 흰 기둥을 사용 하였고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은 짙 은 모노톤으로 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건축물 모두 비정형적 건축을 추구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크다.

해체주의 양식에 속하는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은 현실 세계를 부정

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해체'라는 조형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범종각은 고도로 가득찬 부정적 현실 세계의 대안을 자연 속의 완결된 한 생명 단위로 받아 들이는 긍정적 조형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고 건축의 파격이 궁극적 '긍정'이라면, 서양 현대건축의 파격은 '부정'에서 비롯된 셈이다.

사람과 고딕 성당의 건축구조 비교도 재미있다. 사람의 가람구조는 손세와의 경계인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을 거쳐가야 대웅전이 보인다. 하지만 서양의 고딕성당 구조는 처음부터 명확히 위치가 드러난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웅전의 모습을 숨겨두고 암시와 연상에 의해 존재를 상상하게 만드는 한국 전통 건축과

"가람배치의 여유로움 고딕성당의 조형미서 새천년 건축화두 찾자"

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교회 앞에선 웅장한 출입문으로부터 여정이 시작된다. 이것은 일주문에서 건축적 여정이 시작되는 한국 전통 건축과 같은 개념이다.

이밖에도 지붕과 처마, 돌과 담, 길과 여정 등 18가지 소주제로 구성 300여 컷의 건축물 사진을 통해 동·서양 건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흥미롭게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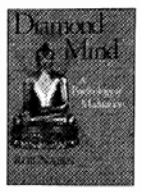
이 책에서 동·서양 건축을 갈라 놓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연과의 관계이다. 우리 옛 건축은 범종각이나 산문에서 보듯이 자연을 수용하

며 어우러진다. 반면 서양에서는 인간이 만드는 완벽한 체계를 건축으로 보고 있다. 즉 우리 옛 건축의 우수성은 자연미속에 있다고 하고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우수 한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대신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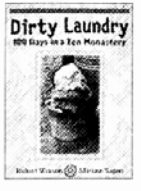
이러한 비교는 궁극적으로 전통 건축 속에서 살다가 서양 건축을 받아들여 조형 환경의 큰 변화를 겪는 현재 한국 사회의 건축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비판 그리고 해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저자의 의도 때문이다.

저자는 "동·서양 건축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가치야말로 건축의 본질이며 새로운 천년의 화두임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opia.com)



▲금강석 같은 마음(물 나 이른 지음)= 명상 초심자들의 길라잡이 <금강 석 같은 마음 (Diamond Mind : A Psychology of Meditation)>이 출간됐다. 물 나 이른 이 책에서 명상 초심자들에게 웃을 입고 벗는 것처럼 쉬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심리학'이란 부제가 있는 이 책의 구성은 명상 초심자와 전문가의 상담 형식을 빌려 올바른 명상법을 설명하고 있다. Shambhala Pubns 출판, ISBN 1570625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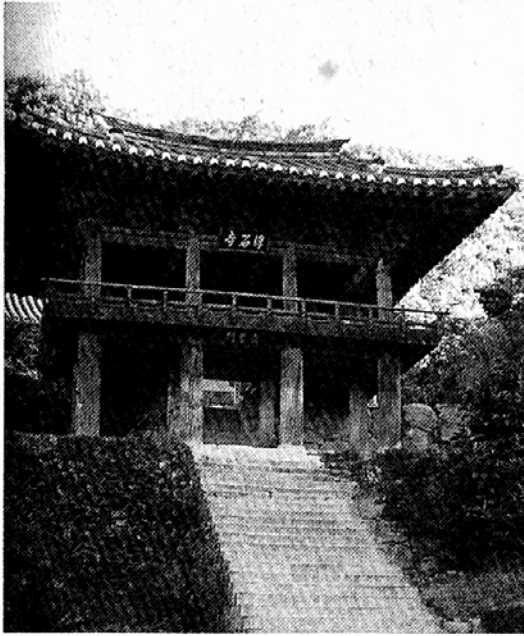


▲더러운 세탁소(로버트 윈슨 지음)= 미국 산사의 수행과 일상은 어떻게? 이것이 궁금한 불자들이 <더러운 세탁소(Dirty Laundry : 100 Days in a Zen Monastery)>를 읽으면 된다. 이 책은 미국 수행자들의 진솔하게 기록한 시, 행장, 야단법석, 꿈 등의 산문을 통해 산사의 인간사(史), 즉 선승의 수행과 일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New World Library 출판, ISBN 1577311051



▲침상과 나무(안토니 모리노 지음)= 인간의 본성, 즉 불성을 탐문한 <침상과 나무(The Couch and the Tree : Dialogues in Psychoanalysis and Buddhism)>가 출간됐다. 서양의 정신분석학과 동양의 불교를 토대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해부한 이탈리아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안토니 모리노의 이 책은 동·서양 철학의 퓨전(Fuzion)을 통해 인간 정신에 대한 비옥한 연구 토대를 제공한다. North Point Press 출판, ISBN 0865475741



○우리나라의 가람배치는 자연과의 교감속에 이루어졌다. 사진은 자연에 순응해 변화무쌍한 계단처리가 잘 나타나 있는 부석사 안양루 모습.



소설로 읽는 인도의 불교

이명희씨 '아쇼카'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전파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마우리아왕조의 성립이다. 제3대 아쇼카왕은 칸링국적을 멸망시키며 광대한 국토를 소유하게 됐다. 이러한 정복 전쟁에서 아쇼카왕은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면서 힘의 정치로 버리고 법(法)의 정치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아쇼카왕은 불교발전에 크게 공헌하며 후세에 전륜성왕으로 추앙받는다.

아쇼카왕의 탄생 인연에서부터 전성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적은 소설 <아쇼카>(우리)가 나왔다.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 재학중인 이명희씨가 쓴 소설로,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저자는 "인도의 관습과 아쇼카라는 왕을 알아야 인도를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값 7천원.

목담스님 문집-범어집 출간

열반 20주기 맞아

"저 법계를 초월한 범성이야 어찌 생사윤회상에 걸림이 있으리요. 만일 누가 나의 오고 간 곳을 물으면 구름은 청천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 하겠노라!"

평생 수행과 교화로 매진한 성우 목담스님(1896~1981) 열반 20주기를 맞아 <목담대종사문집>과 <범어집>(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가 나란히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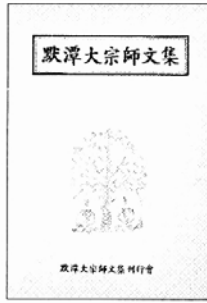
목담문도회에서 간행한 <목담대종사문집>에는 영찬법어를 비롯 예수재, 천도 및 가사불사, 대승보살계 등에서 실한 각종 법문과 교시문, 기문 등이 총망라됐다.

이밖에도 부록으로 목담대종사비문, 계보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이 문집에는 "계율은 삼세제불이 출현하신 큰 법규이고, 사부대중이 성위에 오르는 중요한 문"이라고 강조

한 목담스님의 철저한 계율사상이 잘 녹아 있다.

태고종 종정 덕담스님은 서문에서 "목담스님은 우리나라 불교사에 보기도 못한 청정승사로써 20세기 정신적 사표가 될 만하다"며 "오늘의 수행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매품.

도서출판 밑밭에서 현대고승범어집 시리즈 9번째로 목담스님 범어집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를 펴냈다. 목담스님의 선사상이 함축된 범어를 중심으로 엮은 이 책은 관음선원 승가조사당 낙성법회 법문 등 각종 법회에서 실법한 20여 편의 법문을 모두 4장으로 나누어 실고 있다. 수행자에게 있어 계율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정각을 이룰 수 없고 부처도 이룰 수 없다"는 목담스님의 법어는 현 승가의 수행상을 돌이켜 보게 한다. 값 7천5백원.



겨레의 얼굴 어떤 모습일까

황규호씨 '한국인 얼굴이야기' 펴내

가늘고 긴 눈썹, 살포시 감은 눈매, 다분 입술, 불상의 얼굴에는 자비가 깃들어 있다. 불상의 얼굴은 아무렇게 생긴 것이 아니다. 다양한 표정을 빚어내는 불상의 얼굴은 시대적 문화 사상 예술 등이 복합적으로 농축된 불상의 소산이다. 각 시대의 불상과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까닭이다.

충남 서산 가야산 마애삼존불은 '백제의 미소'라 일컬을 정도로 백제적이고, 경주 삼화령 협시보살은 예쁜 신라여인을 연상케 한다.

황규호씨가 펴낸 <한국인 얼굴이야기>(주류서 건)는 얼굴을



◇석조보살좌상 얼굴

통해 민족 정신의 속내를 들여다 본 문화사라 할 만하다. 얼굴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은 물론 불교사, 미술사, 고고학, 민속학의 사항까지 모두 들추어 설명하고 있다.

20만년 전 구석기 사람들의 '태초의 얼굴' 조각부터 익산 마곡사지 수막새기와의 신선,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골목여구의 장승, 고려시대 불화 등 태고부터 지금에 이르는 얼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150여 개의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얼굴은 누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값 1만3천원.

초심으로 가는 여행

정선스님 편저

교리·의례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



신행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교리와 의례를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정선스님(성취선원장)이 펴낸 <초심으로 가는 여행>(부흥기획)은 독특한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입문서라 할 만하다. 보조국사의 <개초심학입문>을 저본으로 요즘 불자들의 성향에 맞게 편집했다. 초심으로 가는 여행·자세·예절·참회 등 모두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불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저자는 "불자들이 수행의 근본정신을 잃지 않고 신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간했다"고 밝혔다. 값 8천8백원.

화제의 책

세계의 종교이야기

윤정임 옮김

60여개 항목 나누어 종교별 고찰

<세계의 종교 이야기>(미래 M&B)는 종교의 세계를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종교안내서,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에서 고도의 철학과 사상을 포함한 고등종교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종교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개념들과 각 종교에 대한 개괄적 설명, 각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신화와 전설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60여 개에 이르는 항목으로 나누어 주제별 종교별로 서술하고 있다. 또 각 종교의 발생과 성장의 무대가 된 지역을 조망한 지도, 종교별 분포도 등 관련된 그림과 지도들은 이해를 돕는 촉매 역할을 한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어린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종경	원성	이레
2	금강경강해	도울	통나무
3	만행·하버드에서 화제사까지	현각	열린문
4	원효어록 100선	이영일	불교출판사
5	영가천도	우룡	효림
6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법	화암	여래
7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8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인호	여백
9	방편개시	대성	역시어린
10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	우리

도서 안내: (02)737-0695

역시어린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역시어린은 '물든 바 한 치의 어둠도 없이 전해졌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허운 스님의
방편개시
方便開示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만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40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950년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清末) 이후 쇠퇴해진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歩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였고, 56세 때 찾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졌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86 변형 330쪽 / 값 6,000원